

+ POSRI 보고서

중남미, 잔치는 끝났다

오성주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supremo9@posri.re.kr)

[목 차]

1. 중남미 경제 환경
2. 경제 위기 원인 분석
3. 문제점 진단 및 향후 전망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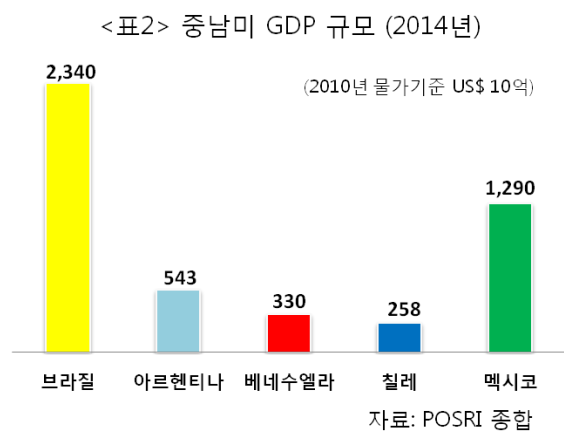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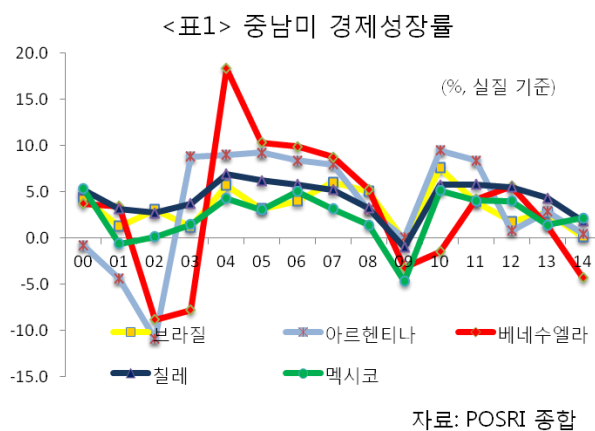
- 2013년부터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중남미 전반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의문 제기
 - 중남미 경제는 브라질, 칠레 등 남미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원자재 산업의 호황과 함께 큰 폭의 성장을 기록
 -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도 극복하며 지속 성장하는 듯 하였으나, 중국의 저성장과 미 금리 인상 전망으로 해외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며 경기 침체
- 중남미 경제 위기의 원인은 원자재 수요 감소(경상 적자), 환율 불안, 정부 재정적 방만 운영, 정치 및 사회 불안으로 압축
 - 중남미 경제 위기는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정치안정과 경제 개방도가 높은 칠레와 페루도 현재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함
 - NAFTA의 멕시코는 미 경제 회복이라는 반사 이익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부패 스캔들 및 사회 불안으로 해외 자본 유출이 확대되면서 폐소화 가치 급락
- 최근 부각되지 않은 또 다른 경제 위협 요인으로 低유가 시황의 지속은 장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 초래 가능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의 경제 대국들은 모두 산유국으로서 이들의 최근 경기 침체는 국제 유가와 밀접한 연관
 - 원유의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에 따른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중남미 석유 기업들은 현재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상공정 기술 부족으로 단기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기대하기 어려움
- 중남미에서 자원 개발의 혜택은 정정 유착, 부정 부패 및 방만 재정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체질 개선과 사회 개혁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 중남미의 편중된 산업 구조와 정정 유착은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여서 단기간 개혁을 통해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브라질은 역대 최악의 스캔들인 멘살라웅에 연이어 Petrobras 비리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위기까지 몰리며 관련 기업들과 국가 신용도가 추락
- 중남미 산유국들은 현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분야 투자가 절실하나 低유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 부족이 투자 유치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
 - 주요 4개국 모두 저유가 시황과 정치 불안으로 해외 자본 및 기술 유치가 어려워 외부 여건의 개선 없이 경제 정상화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 예상
- (시사점) 중남미의 성장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유가 상승 등 뚜렷한 경기 회복의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성급한 투자나 낙관적 자세는 지양
 - 중남미 경제 위기의 재발로 현지 진출 시, 투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유가 회복 없이는 장기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함을 예지할 필요

1. 중남미 경제 환경

□ 2013년부터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중남미 전반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의문 제기

○ 과거 브라질, 칠레 등 남미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 원자재 산업의 호황과 함께 중남미 경제도 큰 폭으로 성장

- 국제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브라질은 대두, 철광석 수출 증가에 힘입어 '02~'10년간 연 평균 3.9%의 성장을 기록, 칠레는 구리 수출 붐으로 이보다 긴 '00~'13년까지 연 평균 4.3%의 성장을 유지



- 이러한 호황을 기반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늘려 인프라 투자, 중점 산업 육성 등 산업 지원과 고용 확대를 통해 실업률 감소 및 서민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중남미 전체로 핑크 타이드*를 확산시킴

※ 핑크 타이드(Pink Tide): 현재 남미에서 파라과이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10개국 정부 성향을 대표하는 표현. 급진적이 아닌 중도 좌파 성향이 강하며, 혁명이 아닌 선거를 통해 집권하여 '분홍 물결'이라 일컫음. 과거 원자재 호황과 함께 10년 이상 큰 인기를 누렸으나, 최근 그 거품이 사라지면서 퇴조하는 추세임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장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 하였으나, 최근 중국의 저성장과 미 금리 인상 우려로 해외 자본 유출이 급증하면서 중남미 전체가 빠른 속도로 침체

- 중남미 국가들도 전 세계와 동일하게 2009년 큰 침체를 겪었으나, 바로 반등하며 성장세를 유지해오다 2013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하락하여 올해는 중남미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 예상
- 특히, 브라질은 이보다 앞선 2012년부터 침체 조짐을 보여 왔으며, 외부 요인 외에도 투자 및 소비 부진과 사회 불안이 겹쳐 경제 위기에 직면

→ 결과적으로 2000년대를 풍미한 중남미 경제 성장은, 중국의 고 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와 선진국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핵심이었으며, 이러한 추세의 소멸과 함께 중남미 경제도 빠르게 위축

- 더 큰 문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경제 대국들이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일부는 디폴트 국면에 돌입
 - 브라질은 지난 12년간 비교적 잘 관리되어 오던 물가가 올들어 한계치 ($4.5 \pm 2\%$)를 완전히 벗어나면서(8월 기준, 9.3%),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6년 만에 최고치인 14.25%까지 인상
 - ※ '15년 9월, S&P는 브라질 재정 악화 및 긴축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로 강등
 -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미국 등 서방국과의 갈등으로 국제 자본 시장에서 소외된 상황에서 최근 유가마저 급락하면서 외환 보유액 부족으로 디폴트 직전 상황에 직면

2. 경제 위기 원인 분석

□ 중남미 경제 위기 원인은 ①원자재 수요 감소(경상 적자), ②환율 불안(자본 유출), ③방만한 재정운영(재정 적자), ④정치불안으로 압축

- 현재 중남미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위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국가별 산업 구조와 경제 개방 정도에 따라 이러한 대내·외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사한 위기에 직면
 -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위 4가지 요인 모두가 작용하여 현재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

<그림1> 중남미 경제 위기 요인(종합)

위기로인(4)	위기로인(3)	위기로인(2)	위기로인(1)	위기로인(0)
경상적자, 환율불안, 재정방만, 정치불안	경상 적자, 환율 불안, 정치 불안	경상 적자, 정치 불안	경상 적자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파나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자료: PORI 종합

-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구조와 경제 개방으로 중남미 모범국으로 평가 받는 칠레와 페루도 현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 칠레와 페루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리의 수요 감소로 정부의 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히, 칠레는 최근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현 정부의 인기가 추락하며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 우려

○ NAFTA에 속한 멕시코는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수혜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본 유출과 현 정부의 부패 스캔들로 성장 동력 상실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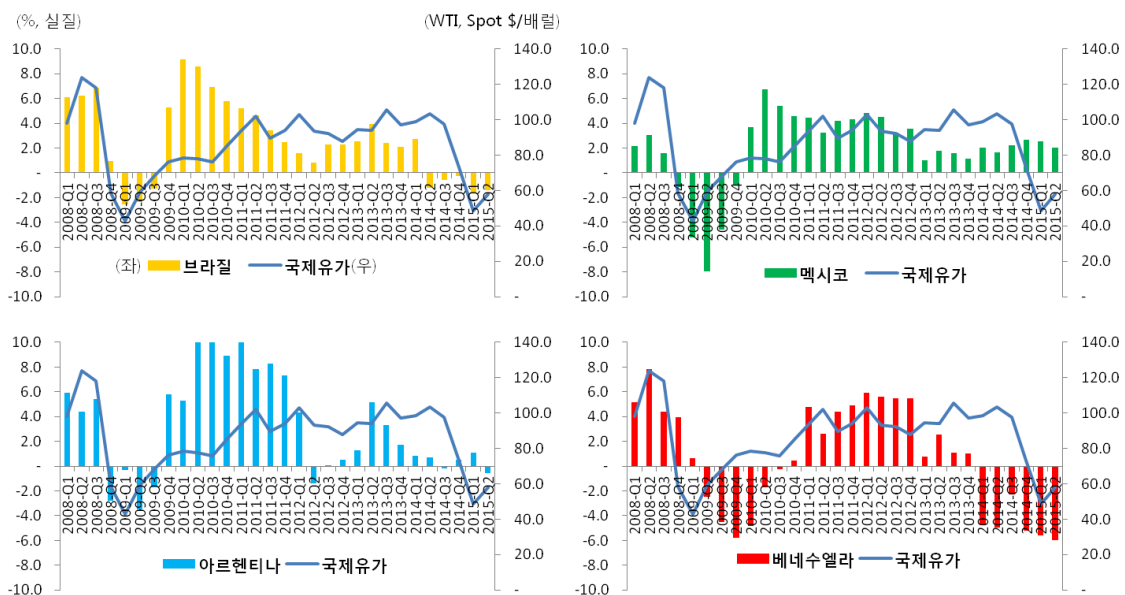
- 멕시코는 남미 주요국들이 폐쇄적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수르(Mercosur) 규정에 묶여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며 제조업 수출로 많은 수혜를 입어 왔음
- 그러나 최근 치안 악화로 사회 안전망에 문제점이 노출된 가운데,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제가 재발하며 현 정부의 개혁 의지와 능력에 의문
- 이 와중에 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해외 자본 유출이 심화되면서, 최근 폐소화 가치가 급락

□ 크게 부각되지 않은 위협 요인으로서 低유가의 지속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모두 산유국으로 이들의 경제 성장은 유가와 깊은 상관 관계

- 이들 4개국은 국제 유가(WTI, Spot기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기록한 2008년과 2011~13년 성장세를 보였으나, 70달러 이하로 떨어진 2009년과 2014년에는 큰 하락세를 보이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표2> 주요국 성장률과 국제 유가 비교



자료: POSRI 종합

※ 위 4개국 GDP가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2014년 기준)로서 이들 경제가 사실상 중남미를 대변함

○ 셰일가스의 개발 등 최근 원유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에 따른 글로벌 低유가 시황이 지속되면서 중남미 석유 기업들은 대부분 위기에 직면

- 중남미 석유 기업들은 지난 호황기에도 노후화된 설비와 기술 열위로 증산을 하지 못해 高유가에 따른 반사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함
- 한편, 당시 중남미 전체로 좌파 정부가 확산되면서 대부분 국영인 이들 회사의 석유 판매 수입을 활용해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
 - 석유 산업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의 경우, PDVSA의 석유 판매를 통해 정부 세수 42%, 수출 84% 및 외화 수입의 96%를 의존하는데, 최근 기록적인 低유가 시황이 지속되면서 경상 적자 확대로 PDVSA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

○ 그러나 향후에도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과 최신 기술이 활용될 글로벌 시장에서 중남미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현재 중남미 석유 기업들은 노후 상공정의 현대화·고도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 노력 중이나, 부족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인해 해외 선진 기업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
- 반면, 중남미의 열악한 투자 환경은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해 대규모 자본 유입이나 기술 이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함
 - 아르헨티나는 작년 선택적 디폴트 돌입 이후, 에너지 분야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실상 중단
 - 더욱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파트너로 선택,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기술 유치가 더 어려워짐

※ 중남미 산유국들은 사실상 유일한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로 미국과 중동이 경쟁적으로 주도해 가는 국제 원유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는 상태

3. 문제점 진단 및 향후 전망

□ 중남미에서는 천연 자원의 혜택이 정경 유착, 부정 부패 및 방만 재정으로 이어지면서 체질 개선과 사회 개혁을 오히려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 중남미의 편중된 산업 구조와 정경 유착 등은 오래된 구조적 문제여서 단기간 개혁을 통해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중남미 국가들은 해방 이후, 쿠데타와 독재 정권의 등장으로 무질서와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해 왔고, 국가 자본이 천연 자원을 활용한 1차 산업에 집중 되어 富의 편중과 왜곡이 심함

- 또한 민주화 이후 등장한 급진 세력 역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여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안을 재발케 함으로써 성숙한 사회로의 전환이 더딤
 - 가장 선진화된 국가로서 재선 대통령을 배출한 칠레마저도 최근 대통령 직제 가족 비리가 터지면서 미성숙한 사회의 취약성을 노출

○ 브라질의 경우, 역대 최악의 부패 사건인 멘살라웅*에 이어, 최근 Petrobras 비리로 현 대통령이 탄핵 상황까지 몰리며 브라질 산업 및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

※ **멘살라웅(Mensalão, Monthly Payment)** : 집권당(PT)이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매수한 뇌물수수, 돈세탁, 횡령 등이 얹힌 총체적 부패 스캔들

- 멘살라웅은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서, 당시 정부 각료, 연방 상·하원 의원 700여명 중 378명이 수사를 받았으며, 최종 37명을 기소하여 연방대법원 판결로 24명이 실형 선고를 받음
- Petrobras 비리 역시,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연루된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스캔들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브라질 국가와 Petrobras의 기업 신용 등급이 모두 하락하고, 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림

※ **Petrobras 비리 사건 (요약)**

브라질 최대 기업이자 국영 석유회사인 Petrobras가 사업상 이득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활용, 오랜 기간 정·관계에 대대적인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의혹

- 동 사건은 일회성 뇌물 공여가 아닌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범죄가 룰라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발생했고, 호세프 현 대통령이 이 시기에 Petrobras 이사회 의장을 맡아 현재 초대형 스캔들로 비화
- 또한, 룰라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Petrobras 사업 수주 관련 비정상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 중

→ 특히, Petrobras는 해외 기업들과도 연루되어 미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1.8조원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중남미 산유국들은 현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개혁이 절실하나, 低유가와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 부족이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

○ 오래 전부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브라질 심해 유전 개발은 Petrobras 유동성 부족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지연 전망

- 2007년 리브라(Libra) 광구의 심해 암염하층(Pre-salt)에서 첫 거대 유전 발견 이후, 정부가 Petrobras에게 독점권을 주고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기술 부족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업 지연

- '13.10월 외부 입찰로 전환 이후, 첫 입찰에서 사업 타당성 및 매력도 부족으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으며 흥행 실패, Petrobras가 사실상 다시 낙찰 받음
 - 당시 Petrobras가 주도한 컨소시엄은 유일한 입찰자로서, 주주사는 Petrobras 40%, Shell 20%, Total 20%, CNPC 10%, CNOOC 10%로 구성
- 최근 Petrobras가 2015~16년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에두아르두 브라가 에너지 장관이 사업 연기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개발은 무기한 지연 예상
- 아르헨티나는 한때 YPF(원유상공정) 지분 재매각을 통해 해외 자본과 기술 유치를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대내·외적 제약 요인으로 사실상 중단
 - 크리스티나 정부는 '12.6월 당시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던 Repsol로부터 YPF를 강제 국유화하고 증산을 추진했으나, 기술력과 자본 부족으로 실패
 - 이후, 지분 재매각으로 해외 자본 및 기술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부족과 아르헨티나가 선택적 디폴트에 돌입하면서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
 - 代案으로서 '13년 말 셰브론社와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셰일가스 개발로 증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시황의 큰 변화로 개발 실효성에 의문
 - ※ 현재 아르헨티나는 외화 부족이 심각하며, 2014년 말 중국과 전략적 관계 확대 이후, 통화 스왑 등으로 외환 보유고를 늘려 가고 있으나, 경상 적자 심화로 외환 시장 안정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멕시코의 에너지 개혁은 일단 성공하였으나, 고질적인 정치 부패와 사회 불안으로 동력 상실 우려
 - 2014년 멕시코 정부는 외국인의 상공정 투자 허용을 위해 헌법까지 개정하는 노력 끝에 투자 유치에 성공, 순풍을 타는 듯 하였으나 최근 대통령 부인과 측근들의 정경유착 비리가 밝혀지면서 정부 신뢰도 급락
 - 대학생 43명 피살과 갱 두목 탈출 사건 등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며 사회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폐소화마저 급락하면서 기존 투자 유입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지가 관건
- 이외, 베네수엘라는 대규모 정치 소요 사태 및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경제가 디폴트 직전에 돌입
 - 현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하고, 국영 석유기업인 PDVSA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국가 재정이 低유가로 사실상 붕괴된 상황으로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 소요 예상

4. 시사점

□ 중남미 성장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유가 상승 등 뚜렷한 경기 회복에 대한 합리적 확신 없이 성급한 투자나 낙관적 자세는 지양

- 중남미는 ‘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it's different)’며 또 한번 세계의 관심을 이끌었으나, 글로벌 원자재 수요 급락과 함께 또 다시 추락하며,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으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존 템플턴이 영어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라고 한 말
- 주식 시장 등에 고소득을 기대하며 몰려드는 대중의 속성을 빗댄 표현

- 중남미의 경제 특성 상, 풍부한 천연 자원은 혜택이자 동시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독이 든 성배’와 같음
→ 산업 구조 다변화와 부패 척결 등 정치·사회 개혁 없이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음을 알아야

※ 브라질은 1930년대부터 ‘미래의 나라’로 불려 왔지만, 현재에도 ‘미래의 나라’이며, 구조적 개혁 없이는 미래에도 여전히 ‘미래의 나라’일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주목할 필요

- 중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서, 정부 재정의 핵심이기도 한 석유 산업의 회복 없이는 단기간 경기 회복 기대 어려움
 - 한국은 중남미에서 철광석, 구리, 대두 등을 주로 수입하고, 석유 거래는 많지 않아 중남미 석유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
 - 하지만 중남미 산유국들은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 과잉과 低유가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인식해야 함
- 중남미는 경제 시스템이 낙후한 지역 중 하나로서, 현지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출 시, 외부 Risk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
 - 중남미는 경기 침체 시에도 지금과 유사하게 물가 상승과 환율 급락(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 검토 시, 충분히 바닥을 확인한 이후 진출을 모색하는 안전한 접근 방식이 필요

[참고자료]

[보고서]

오성주, “중남미 석유산업 국유화, 자원민족주의 아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2012. 6

오성주, “브라질 대선 전망과 룰라 복귀說의 의미”, 포스코경영연구원, 2013. 8

오성주, “브라질, 경제 구조 변화 시급하다”, 포스코경영연구원, 2013. 10

오성주, “지구 반대편, 라틴아메리카 바로 알기”,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 4

[홈페이지]

IMF (www.imf.org)

World Bank (www.worldbank.org)

IDB (www.iadb.org)

EIA (www.eia.gov)

Economic Commissi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ww.cepal.org)

IHS Connect (connect.ihs.com/home)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spanish.snu.ac.kr) &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snu.ac.kr)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energia.mofa.go.kr)